

numbers 제 73호



주요 내용

2020. 11. 27

1. 이번 주 주제 : [통계청 '2020 사회조사'로 본 한국 가정 형태 및 의식 변화]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2. 1)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2)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일반 사회 통계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혼 출산을 국내에서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비혼 출산이 이슈가 되었고, 이와 관련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국회에서는 입법화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침 통계청이 ‘2020 사회조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 10명 중 3명가량(31%)이 비혼 출산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23%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20대 젊은층은 38%까지 찬성률을 보였다. 또 비혼 동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고, 20대 젊은층은 무려 79%나 찬성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재혼 가족, 미혼모/부, 비혼 동거 가족, 입양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혼인, 출산, 이혼, 동거, 낙태 등 가족과 관련된 인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73호는 가족과 관련 국민 인식 변화에 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데이터를 추적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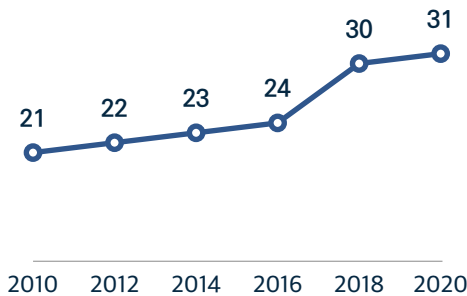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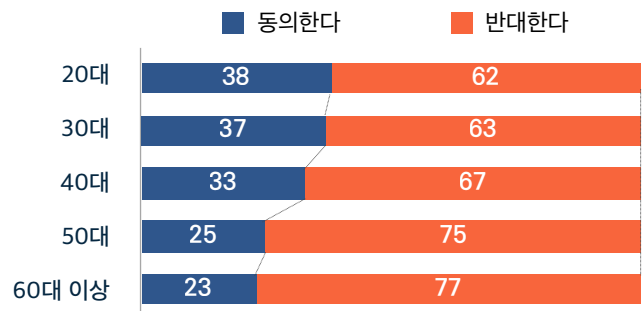
비혼 출산, 국민 10명 중 3명 ‘찬성한다’

- 통계청에서 11월 18일에 ‘2020년 사회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는지, 즉 비혼 출산에 대해 국민의 3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1%에서 2020년 31%로 10년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비혼 출산 인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젊은 층은 37-38%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25% 이하의 비교적 낮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비혼 출산 인식 추이(동의율) (%)



[그림] 비혼 출산 인식(동의율, 2020)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전국 18,5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 약 37,750명, 면접 조사/자기 기입식 및 온라인 조사, 2020.05.13.-28)
**각 연도별 사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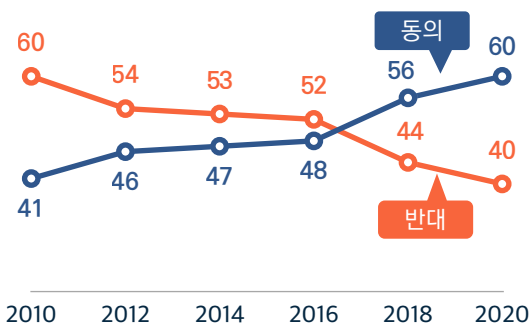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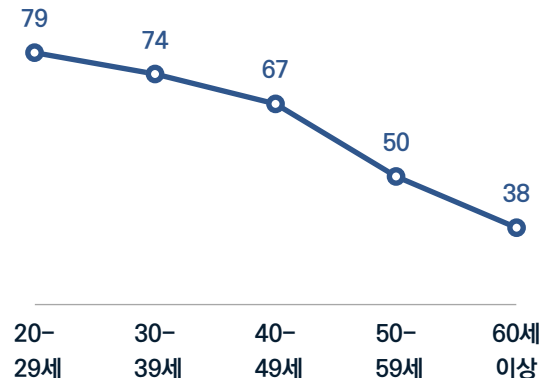
비혼 동거 ‘국민의 60%가 동의’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혼 동거에 대해 긍정 인식이 2010년 41%에서 2020년 60%로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비혼 동거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젊은 층은 4명 중 3명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비혼 동거 인식 추이(연도별)** (%)



[그림] 비혼 동거 동의율(연령별, 2020)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전국 18,5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 약 37,750명, 면접 조사/자기 기입식 및 온라인 조사, 2020.05.13.-28)
**각 연도별 사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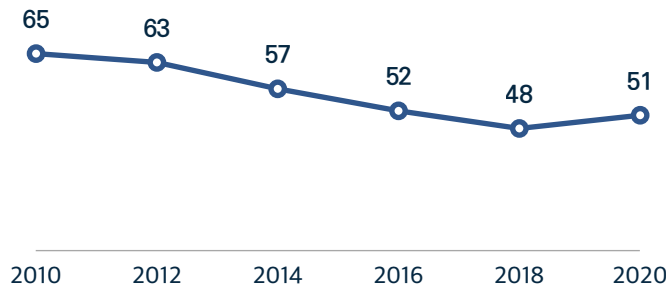
3



우리 국민의 결혼 인식, 2명 중 1명만이 '결혼해야 한다'고 인식!

- 결혼에 대해, 우리 국민의 (51%) 만 결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은 2010년 65%에서 2018년 4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20년 5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결혼해야 한다' 동의율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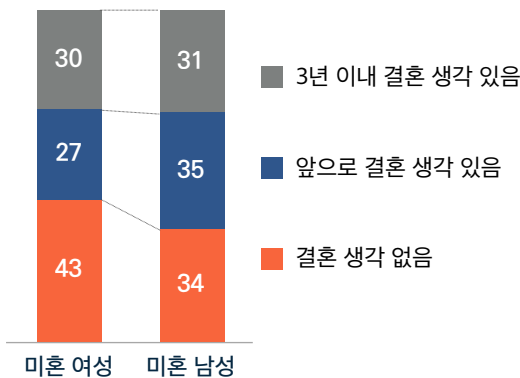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전국 18,5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 약 37,750명, 면접 조사/자기 기입식 및 온라인 조사, 2020.05.13~28)
 **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 각 연도별 사회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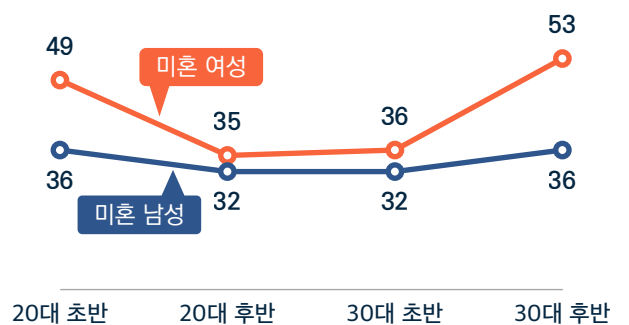
● 미혼 여성(20~39세), 30대 후반이 되면 2명 중 1명 이상이 결혼 생각을 접는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청년층의 생애전망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미혼 청년 여성'의 57% 정도가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미혼 남성'은 66%로 여성보다 높은 의향률을 나타냄
- 향후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층에서 높는데, '미혼 여성' 중에는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이 되면 절반 이상이 결혼 생각을 접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미혼 청년층(20~39세)의 향후 결혼 의향(%)



[그림] 연령별 '결혼 생각 없음' 비율 (미혼 청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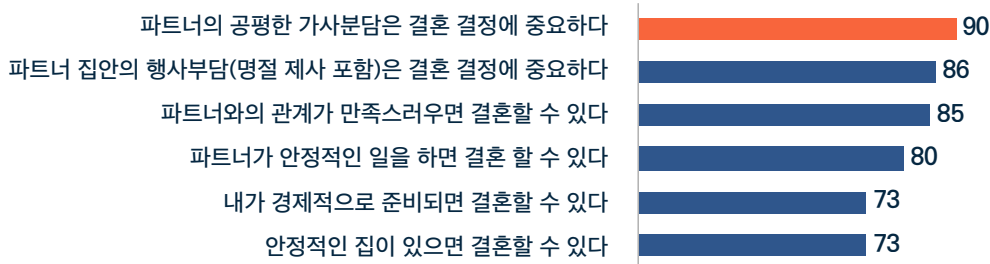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년층의 생애전망 실태조사(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1)', 2019.12. (전국 만20~39세 청년, 6,350명, 온라인 조사, 2019년)

● 20-30대 미혼 여성의 결혼 전제 조건, 배우자의 공평한 가사 분담 및 시댁 행사 부담이 가장 중요

- 이렇듯 미혼 여성들의 결혼 의향률이 낮아지는 현실에서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의 전제 조건을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배우자(파트너)의 공평한 가사 분담(90%)과 시댁의 행사(명절 등)부담이 가장 높게 응답됨.
- 따라서 남편의 가사 분담과 전통적인 시댁 행사 문제가 현대 한국 여성의 결혼 결정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이라 볼 수 있음

[그림] 20-30대 미혼 여성의 결혼 전제 조건('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년층의 생애전망 실태조사'(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1), 2019.12. (전국 만20-39세 청년, 6,350명, 온라인 조사, 2019년)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그렇다'+약간 '그렇다'를 합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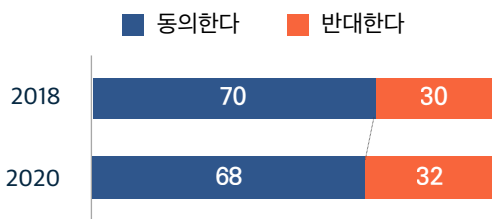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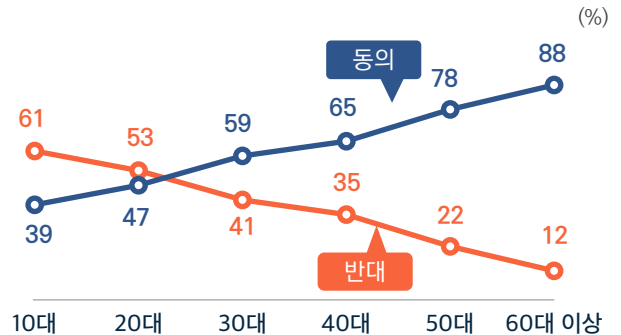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국민 3명 중 1명 '반대'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도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한다' 68%, '반대한다' 32%로 국민 3명 중 1명가량이 '결혼=자녀 출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층은 '결혼=자녀 출산'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높음으로 나타남

[그림]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동의율)**(%)



[그림]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동의율, 연령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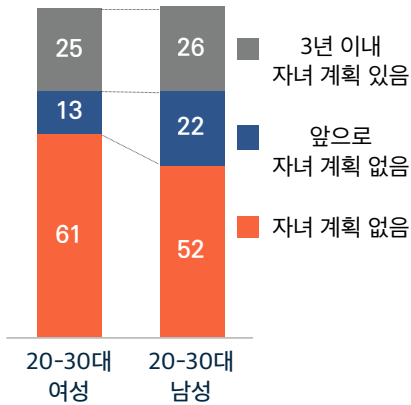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전국 18,5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 약 37,750명, 면접 조사/자기 기입식 및 온라인 조사, 2020.05.13.-28)

** 이 항목은 2018년부터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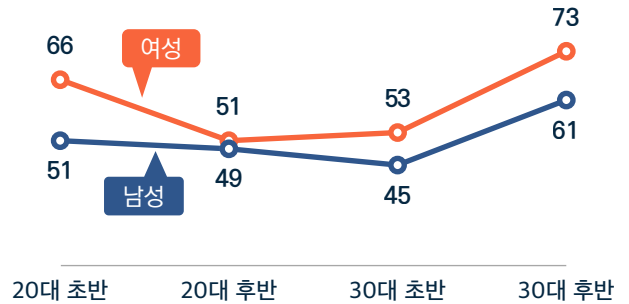
● 20-30대 젊은 여성, '향후 자녀를 가질 생각 없다' 61%

- 20-30대 청년 층(기혼자 포함)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여성'은 61%가, '남성'은 52%가 각각 가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 후반 여성의 경우 4명 중 3명 가까이(73%)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향후 자녀를 (더) 가질 의향(20-30대)** (%)



[그림] '향후 자녀 가질 의향 없다' (20-30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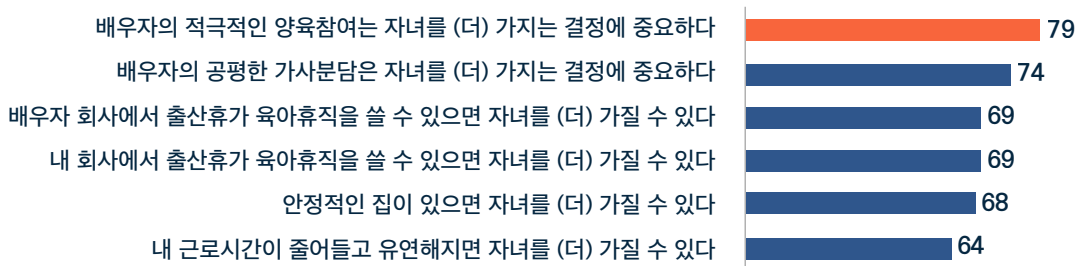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년층의 생애전망 실태조사'(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1), 2019.12. (전국 만20-39세 청년, 6,350명, 온라인조사, 2019년)
 ** 본 설문은 응답자는 39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기혼자가 포함되어 있음

● 20-30대 젊은 여성의 자녀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 배우자의 적극적 양육 참여와 공평한 가사 분담을 가장 높게 꼽아!

- 20-30대 젊은 여성들은 향후 자녀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배우자의 적극적 양육 참여와 공평한 가사 분담을 경제적 요인이나 본인의 일, 가족 양립 여건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갖는 조건으로 남편들의 전통적인 가정 내 성 역할에서 벗어난 공평한 양육과 가사 분담 노력을 여성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0-30대 여성층의 향후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년층의 생애전망 실태조사'(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1), 2019.12. (전국 만20-39세 청년, 6,350명, 온라인 조사, 2019년)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그렇다+약간 그렇다'를 합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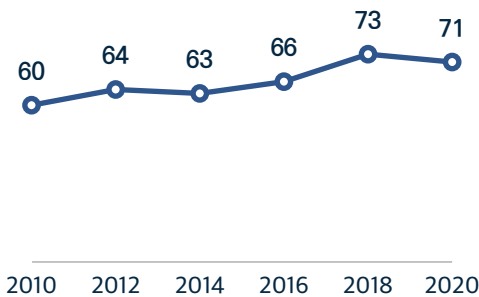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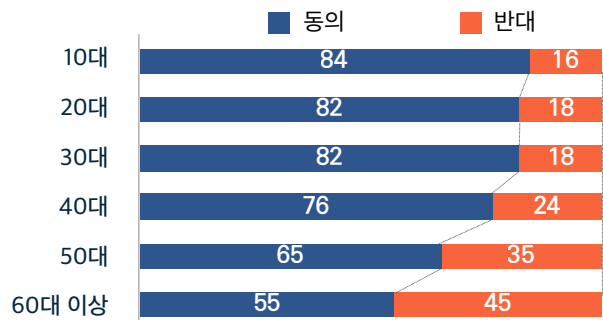
우리 국민,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71%

- 외국인과의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2010년 60%에서 2020년 71%로 10년 사이에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대부분의 젊은층들은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임

[그림]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동의율 추이(전체) (%)



[그림]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동의율, 연령별, 2020년)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전국 18,5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 약 37,750명, 면접 조사/자기 기입식 및 온라인 조사, 2020.05.13.~28)

** 각 연도별 사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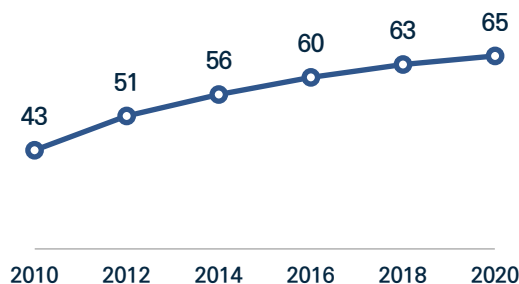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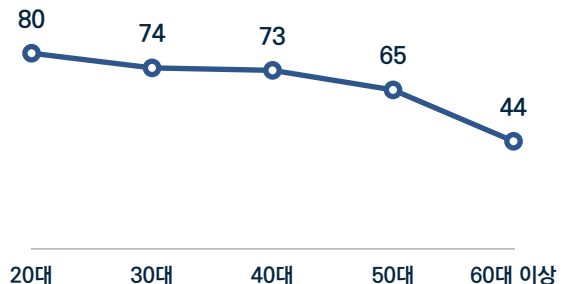
국민 3명 중 2명, '이혼할 수 있다'

- 이혼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다'는 인식이 2010년 43%였는데 2020년 65%로 국민 3명 중 2명은 이혼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0%, 30대 74%로 20-30대 젊은층의 경우 4명 중 3명 이상이 이혼 수용도를 보였으며, 50대 역시 65%로 3명 중 2명가량이 이혼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이혼할 수 있다' 동의율 추이(연도별) (%)



[그림] 연령별 '이혼할 수 있다' 동의율 (2020)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전국 18,5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 약 37,750명, 면접 조사/자기 기입식 및 온라인 조사, 2020.05.13.~28)

** 각 연도별 사회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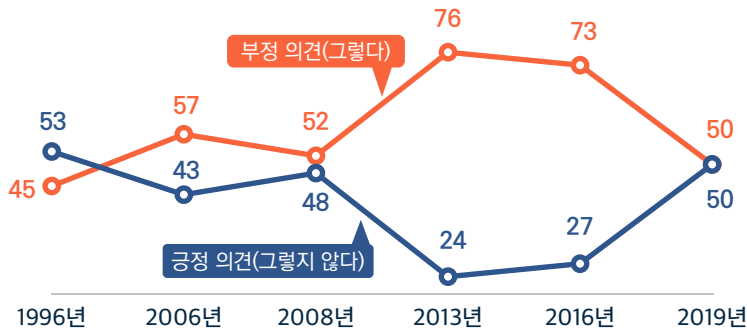
7



낙태에 대한 국민 인식, 정확히 반반으로 갈림

- 낙태에 대해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낙태는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 50%, '그렇지 않다' 50%로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보고서')
- 낙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2013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낙태에 대한 의견 추이(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 (%)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보고서', (전국 만 19~79세 일반 국민 5,1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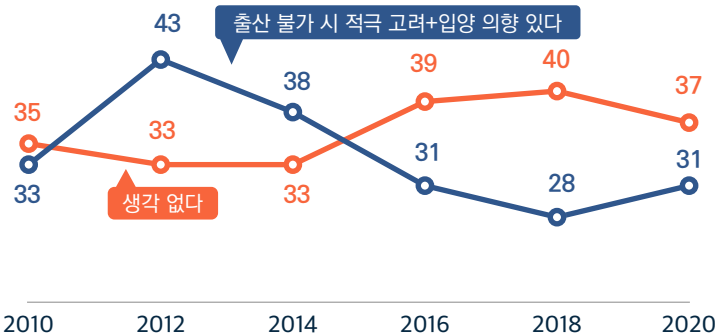
8



입양에 대한 국민 인식, 국민 10명 중 3명 정도 긍정적!

- 입양에 대해 출산 불가 시 적극 고려하겠다는 응답과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입양 의향이 있다는 응답을 합한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점점 하락하다 2020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입양 문화가 아직까지 확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그림] 입양에 대한 인식 추이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전국 18,5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 약 37,750명, 면접 조사/자기 기입식 및 온라인 조사, 2020.05.1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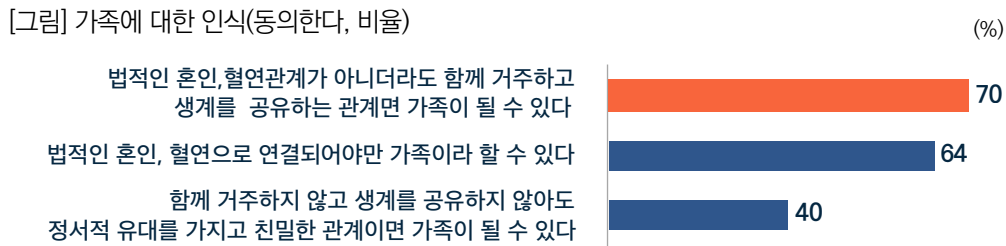
**이 항목은 2018년부터 조사함

9



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 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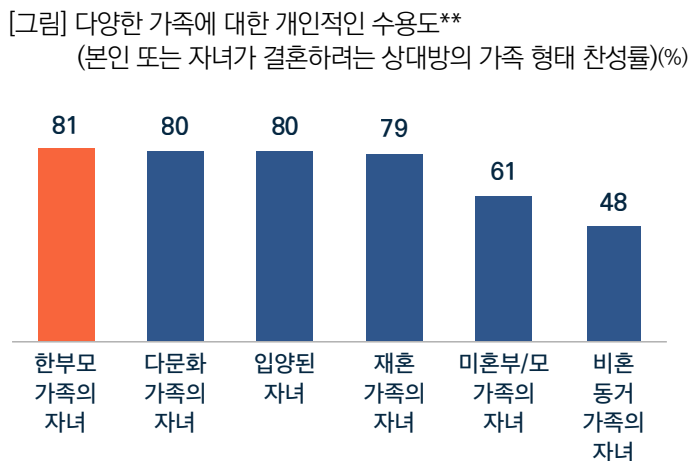
- 최근 사회 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족 개념 역시 변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혼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0%가 법적인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020.07.01.(전국 만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1,500명, 전화 면접 조사, 2020.05.18.-29.)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상당히 높은 수준!

- 응답자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 가족의 형태가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 형태인 경우 수용도를 알아본 결과, '한부모 가족의 자녀' 81%, '재혼 자녀의 자녀' 79%, '다문화가족의 자녀' 80%, '입양된 자녀' 80% 등의 찬성률을 보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음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020.07.01.(전국 만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1,500명, 전화 면접 조사, 2020.05.18.-29.)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찬성 비율임



시사점

언젠가 ‘비혼’이라는 낯선 말이 생기더니 이제 ‘미혼’을 대체하면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대 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사이트인 ‘빅카인즈’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1990~2019년) 보도된 신문·방송 뉴스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키워드 별로 분석했다. 전체 뉴스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미혼 여성’으로 지칭한 경우가 20년간 41,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싱글’이 15,410건, ‘노처녀’가 10,634건을 차지했다. 반면 ‘비혼’이라는 표현을 쓴 경우는 6,692건으로, ‘골드미스’(4,857건)라는 표현에 이어 사용 빈도가 두 번째로 적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전에 많이 쓰이던 ‘미혼’이라는 표현이 줄고 ‘비혼’ 용어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횡수를 보면 ‘미혼여성’이란 용어는 2013년 2,63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렸다. 다른 표현들도 사용 횡수가 줄고 있는 추세다. 반면 ‘비혼’이란 표현은 최근 몇 년 새 사용이 급증해 2018년엔 ‘미혼’을 비롯한 6개 키워드 중 가장 많은 사용 횡수인 1,452건을 기록했다

그러면 왜 ‘비혼’이 ‘미혼’을 대체하는 걸까? ‘비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은’이란 뜻의 신조어이다. 새로운 말이 생겼다는 것은 기존 말로는 답을 수 없는 새로운 현상 혹은 기존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다는 것을 뜻한다. ‘미혼’은 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상정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비혼’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으로 결혼도 정상적이지만 ‘비혼’도 정상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세대가 ‘비혼’이라는 신조어의 생성과 확산의 이유인 것이다.

그러면 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걸까? 우선은 비혼이 주로 여성 측면에서 언급되는 것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조남주 작가가 쓰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남성들에게는 자신을 성찰하게 한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결혼 후에 여성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여준다. 여성이 결혼하면 개인으로서의 여성은 사라지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일과 경력을 중단하게 된 ‘경단녀’(경력이 단절된 여자)가 되고 아이가 커서 일을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혼 전의 일과 경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경단녀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저임금 임시직과 같은 열악한 일에 취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다. 결혼을 하면 여성은 가정에 종속되고 자기는 없어지는 이러한 현실이, 여성이 결혼을 꺼리는게 이유가 되었고 그런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교회가 ‘가정’을 강조하고 가정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남녀가 별도로 모이는 모임이 많았으나 요즘은 가정을 강조하면서 부부가 같이 모이는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비혼이 늘어나면서 부부 중심의 모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가정을 강조할수록 이들은 소외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비혼자를 위한 모임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오히려 비혼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다. 이래 저래 목회 차원에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위축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사람들을 나누면 안된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2.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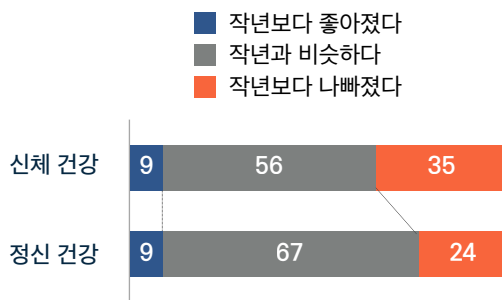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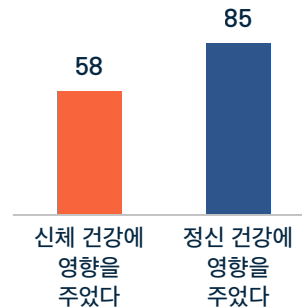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한국리서치가 최근 한국인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해 조사했는데, 신체 건강의 경우 작년 대비 올해 '좋아졌다' 9%, '나빠졌다' 35%, 정신 건강의 경우 '좋아졌다' 9%, '나빠졌다' 24%로 각각 응답하여, 작년 대비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신체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11%p 높게 나타남
- 또한 코로나19의 건강 영향도를 물어본 결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85%,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58%로 응답해, 코로나19의 영향은 정신/신체 건강에 모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침

[그림] 작년 대비 정신/신체 건강 변화(그렇다) (%)



[그림] '코로나19가 정신/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응답률(그렇다)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 104-2호), 여론속의여론,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2020.11.18.(전국, 만 18세 남녀, 1,000명, 웹 조사(모바일 및 메일), 2020.09.25.-09.28)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을 합한 수치임

● 올해, 작년보다 '행복감' 줄고, '걱정' 늘고, '우울감' 증가!

- 2019년과 비교해 올해 마음 건강과 관련, '행복감'은 떨어지고, 걱정 정도와 우울감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마음 건강에 관한 세 지표 모두 나빠진 것으로 조사됨

[그림] 마음 건강 지표(2019** vs 2020, 0~10점 척도, 평균값)

(점)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 104-2호), 여론속의여론,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2020.11.18.(전국, 만 18세 남녀, 1,000명, 웹 조사(모바일 및 메일), 2020.09.25.-09.28)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3.20. (전국, 만 19세~69세, 8,000명, 면접 조사/자기 기입식, 2019.09.01.-10.31)
 Note : (질문) 어제 어느정도 행복했습니까?, 어제 어느정도 걱정을 했습니까?, 어제 어느정도 우울했습니까?

● 한국인의 정신적 고통이나 질병 원인 1위, '경제적 문제'

- 최근 1년 간 한국인의 정신적 고통 또는 질병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 17%, '직장/사업 문제' 13%, '가족/친척 문제' 12%, '대인 관계 문제' 8% 순으로 나타남

[그림] 정신적 고통이나 질병 원인(상위 5위, 정신적 또는 고통 질병 경험자 878명)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 104-2호), 여론속의여론,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2020.11.18.(전국, 만 18세 남녀, 1,000명, 웹 조사(모바일 및 메일), 2020.09.25.-09.28)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을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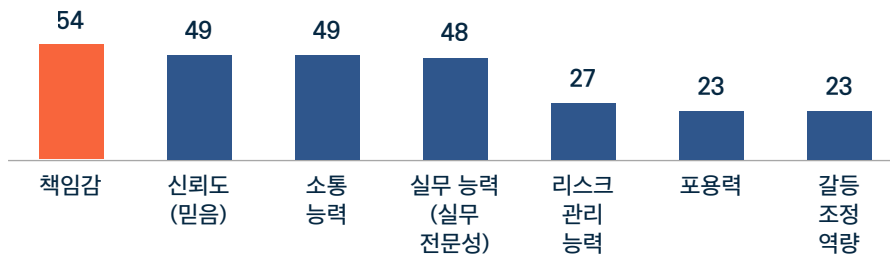
2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직장인들은 조직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과 자질로 '책임감'(54%)을 가장 높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 '신뢰도(믿음)' 49%, '소통 능력' 49%, '실무 능력' 48% 등으로 응답함

[그림] 조직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 및 자질 (중복 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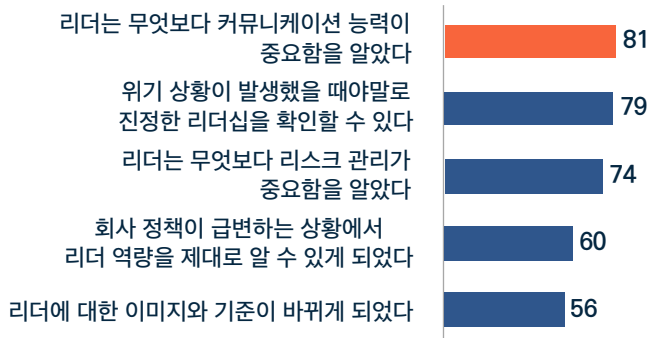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리더의 소통 및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 코로나 시대, 지금 옆에 좋은 리더가 있습니까?', 2020. 11.06 (전국, 직장인 남녀 19~59세, 1,000명, 020.07.17.-0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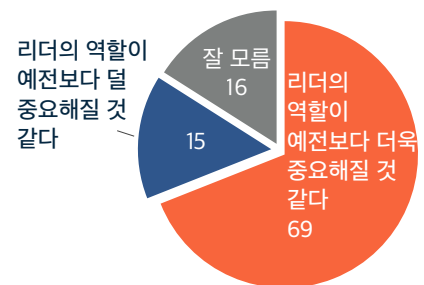
● 직장인의 79%, '위기 상황 발생 시 진정한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다!'

- 직장인의 대부분(79%)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69%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뉴노멀시대에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직장인들은 회사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리더의 역량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고(60%), 리더에 대한 이미지와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56%)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의 81%는 리더에게는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74%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각각 응답함
- 한국 교회 역시 현재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의 리더십의 역량, 또 개체 교회에서 목회자 등의 리더십 역량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임

[그림] 코로나19 이후 조직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 및 자질 (중복 응답, 상위 7위) (%)



[그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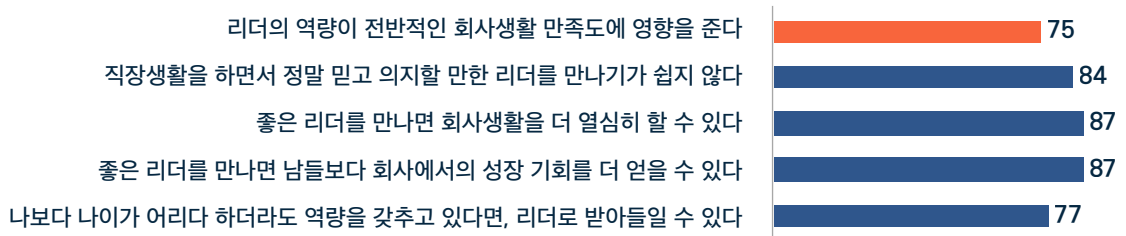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리더의 소통 및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 코로나 시대, 지금 옆에 좋은 리더가 있습니까?', 2020. 11.06 (전국, 직장인 남녀 19~59세, 1,000명, 020.07.17.-07.21)

● ‘좋은 리더를 만나면 회사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87%

- 직장인 4명 중 3명(75%)은 ‘리더의 역량이 전반적인 회사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해 리더 역량이 구성원의 직장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으로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리더를 만나기 쉽지 않다’에 84%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진정한 리더를 만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음. 그러나 ‘좋은 리더를 만나면 회사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응답이 87%로 나타나, 어떤 리더냐에 따라 조직 문화, 조직 성과 등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이 점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당회장 목사 뿐 아니라 부교역자, 장로, 부서장, 교사, 구역장 등 각 분야에서 사역하는 리더들의 리더십 역량을 어떻게 키우는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한 실제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그림] 직장생활에서 리더에 대한 전반적 인식 (‘그렇다’ 응답률)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리더의 소통 및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 코로나 시대, 지금 옆에 좋은 리더가 있습니까?’, 2020. 11.06 (전국, 직장인 남녀 19-59세, 1,000명, 020.07.17.-07.2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사유리 '비혼 출산' 호응하는 여성들... "결혼 불평등 싫어"](#)

연합뉴스_2020.11.22.

[저소득 20% 가구 절반 이상이 '적자'...비율 7년 만에 최고](#)

연합뉴스_2020.11.22.

일
반

[종교호감도 '불교50.9-천주교50.3-원불교30.8-개신교28-이슬람15](#)

프리뉴스_2020.11.25.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스펙은?... "학벌보다 인턴 경험이 더 중요"](#)

동아일보_2020.11.24.

경
제

[대출 공화국, 3분기 가계대출 1682조 원, 통계작성 후 최대폭 증가](#)

서울신문_2020.11.25.

[에어비앤비 빈 방 없고, 쏘카 씹씹... 공유경제 전화위복](#)

한국일보_2020.11.23.

코
로
나
1
9

[전업주부 '아이와 씨름', 3시간32분 늘었다](#)

조선일보_2020.11.23.

[코로나가 할퀸 삶...무너진 부\(富\)의 사다리](#)

동아일보_2020.11.24.

[코로나19 3차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향신문_2020.11.22.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 정리](#)

중앙일보_2020.11.14.

국
제

[블룸버그 "韓, 코로나시대 살기 좋은 나라 4위"...1위는 뉴질랜드\(세계 53개국조사\)](#)

조선일보_2020.11.25.

[코로나19 이후 주요국가별 경제성장률](#)

동아일보_2020.11.24.

[40대 남성 사망률... 90년대엔 한국이 미국의 2배, 지금은 '거꾸로'](#)

조선일보_2020.11.25.

큐
레
이
션

[2021년 한국사회 트렌드 예상](#)

플리뉴스_2020.11.25.

기획 기사, 코로나 세대 잃어버린 1학년(초중고1학년 조사) | 중앙일보_2020.11.24, 25

[잃어버린 1학년, 200만명...코로나 신입생은 친구도 학교도 낯설었다](#)

["슬래잡기하다 몸 스치자 소리쳤다"...아이들 모습에 놀란 교사](#)

[학원 친구 이름 줄줄 읊던 초1 "반 친구 이름은 5명도 몰라요"](#)

[사춘기까지 겹친 중1, 낮밤 바뀐 채 폰에 의존하며 '방콕'](#)

[高1의 24시...'고액학원' VS 'EBS 온라인 강의'](#)

["이참에 임대" "차라리 반수" 코로나에 한낱꿈 된 새내기 낭만](#)

[교사 "온라인 수업 준비 가장 부담되죠" 부모 "애들 무너진 생활습관 제일 걱정"](#)

넘버즈 칼럼

내년에는 장막을 넓혀야겠습니다.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연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내년 표어를 정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서 같기 때문입니다. 다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할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내년에 어떤 표어를 정해야 할지 고심하신다면 저는 ‘네 장막터를 넓히라!’로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본문은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인 이들에게 그러지 말고 그 땅에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십니다. 회복에 대한 귀한 약속이지만, 또 달리 보면 거기서 잘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참으로 청청벽력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시온으로 돌아가길 바랐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텐데 이곳에서 장막을 펴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맞았습니다. 포로기는 70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30년으로 세대를 보아도 2세대를 훌쩍 넘기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비하고, 회당을 이루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내년도에도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화이자제약회사와 함께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독일 바이오엔테크 대표가 며칠 전 말씀하시길 내년 겨울에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가장 빨리 백신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대표가 말하는 것이 이제 명확한 것은 내년 일 년도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올해처럼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고 장막터를 넓혀야겠습니다. 곧 끝날 것처럼 굴지 말고 1년짜리 장기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곧 끝나겠지 하다가 마음 상하고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항상 임시상태로 머물다가 실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힘이 들면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답은 변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나 ‘곧 정상입니다’입니다. 변하지만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한 두 번을 넘어가면 그게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도 이제 현실적으로 오래 갈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에 맞는 목회계획을 세워야죠. 한 달짜리, 두 달짜리가 아니라 1년짜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좀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건물 없이 복지관을 빌려서 19년을 목회한 교회인데 올해 들어와서 그 공간을 못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공간을 빌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동안 강의 다니면서 건물 지어 놓은 교회들 황당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빌려 쓰는 교회는 더 황당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건물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별로 쓰임새가 없어진 넓은 예배당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자기 건물

이 없으면 모이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딜레마는 두, 세 달짜리 계획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막을 넓힐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시기를 잘 견디어 내서 목회를 회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시기에 맞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워드 코로나를 어떻게 지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목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지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잘 이겨 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큰 변화 속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72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과천제일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